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여정





발행일 : 2026년 1월 15일

발행인 : 인천국제공항공사 ESG경영처 ESG경영팀

발행처 : 인천공항 가치점프 운영 사무국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51 5층
- 홈페이지 : www.value-jump.org
- 메일 : info@value-jump.org
- 연락처 : 070-4241-0501

디자인 : 달담디자인스튜디오

*인천공항 가치점프 수기집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수기집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발행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탑승 Boar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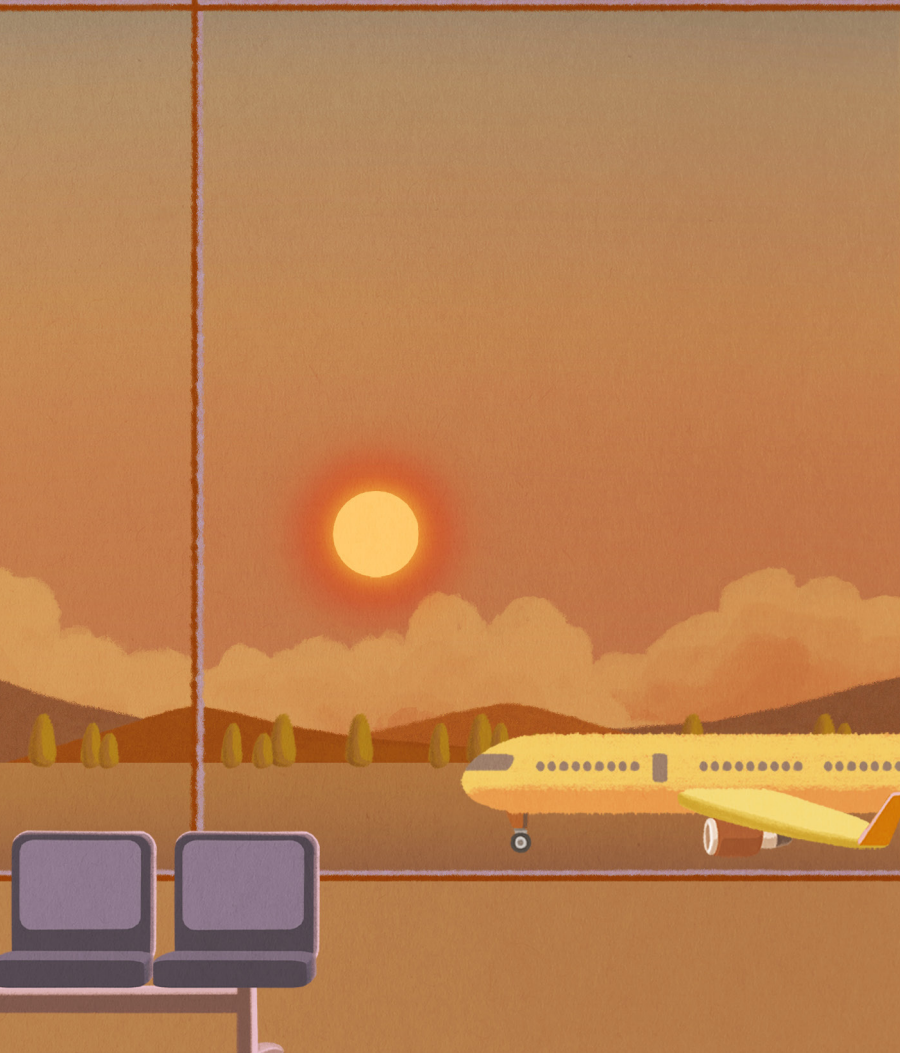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와 함께한 10개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가치점프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기록의 여정에 함께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인천공항 가치점프로 연결된 우리가 어느덧 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별에는 어쩔 수 없는 감정과 여운이 남지만, 올해 우리들의 ‘안녕, 잘 지내!’ 인사에는 그 아쉬움을 조금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동안 아이들을 챙기느라 너무 애썼던 마음 잘 아니까요. 아이들을 응원하다가 되레 자신이 위로받는다는 장학생들의 고백은 언제 들어도 뭉클합니다. 아이들을 아껴준 시간 만큼 어른의 마음도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우리는 또 소중한 무엇이 되어, 서로를 기억하며 응원할 테니까요.

올해로 5년째를 지나는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늘 참여자의 성장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문화 활동의 폭이 비교적 적은 이주 배경 청소년에게 주도적인 자기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던 ‘진로체험활동’, 세계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공간 속 주역들을 직접 만나는 ‘임직원 멘토링’, 승부보다는 응원의 가치를 일깨워준 ‘가치점프 올림픽’,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다문화 가족과 어울려 공동체의 소중한 이야기를 교류한 '가치마을 가족 나들이'까지. 인천공항 가치점프와 함께하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수기집에 담긴 글을 읽으며 서로에게 참 근사한 한 해였음을 깨닫습니다. "대학생 쌤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그릴 수 있었고 내일을 꿈꿀 용기를 얻었다"는 아이들의 진심을 만납니다. 아이들의 말을 기억하려 애쓰는 일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른의 약속을 잊지 말자는 다짐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 가치점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따뜻한 응원과 환대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운영 사무국

이륙 Take Off

본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한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의 이름으로 운항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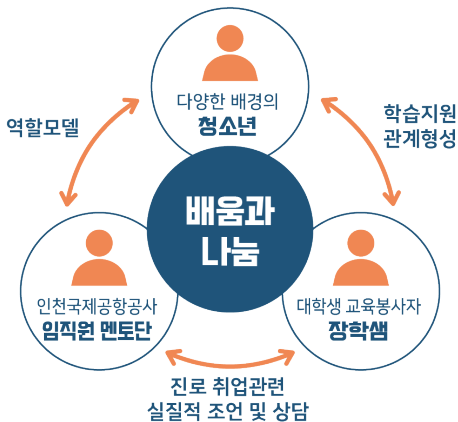
장학생, 청소년, 임직원 멘토단이 함께한 삼각멘토링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연결되는 이 여정은 힘찬 이륙과 함께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인천공항 가치점프란?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인천, 경기 지역의 이주배경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삼각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 교육봉사자가 모두 함께 성장하고, 교육복지 생태계와 현장에 직간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학습센터, 장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자원과 경험을 연결합니다.

주최 및 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단법인 점프

활동 기간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주2회 6시간 활동

장학생 100명

인천공항 가치점프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교육봉사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장학생과 선생님의 합성어입니다.

학습센터 27개소

장학생이 파견되는 교육기관이자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장학생과 청소년이 학습 및 정서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청소년 396명(이주배경 청소년 비율 74%)

학습과 정서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성장의 주인공입니다.

임직원 멘토단 30명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멘토단으로, 진로와 일, 삶의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과 장학생 곁에서 성장을 응원하는 든든한 롤모델입니다.

비행 In Flight

현재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는 장학생, 청소년, 임직원 멘토단이 함께 걸어온 시간 위를 비행 중입니다.

장학생의 시선으로 기록된 성장과 배움, 각자의 에피소드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 이 여정의 풍경을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가 날아온 길

1 3/14(금) ~ 3/15(토)

발대식 및 사전교육



8/27(수) 5

살롱 드 가치점프



9월 ~ 11월 6

7 10월

하반기 진로체험활동

하반기 장학생 간담회



2 4월 ~ 6월

상반기 진로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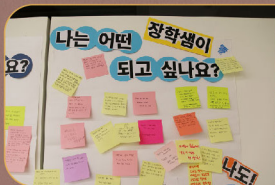
3 5/31(토)

가치점프 올림픽



7/9(수) 4

장학생 중간 역량강화 교육&간담회



8 11/1(토)

가치마을 가족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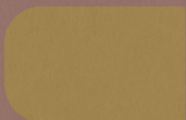
9 11/19(수)

멘토링 데이



10 1/15(목)

수료식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책임감 #꾸준함 #성장

10개월간의 시간



고송하

간석지역아동센터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웃고, 고민하고, 때로는 시행 착오를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 정해진 활동을 무사히 마치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활동을 이어가며 점차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향과 감정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 새로운 환경에서 주눅 드는 아이, 멘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아이 등 다양한 모습을 보며 동일한 방식의 지도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 주고, 학습 이전에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활동과 놀이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공간에서도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적응하며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가능성과 회복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지도자의 역할 보다 아이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어른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은 저에게 책임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며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약속된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끝까지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와 꾸준함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저에게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이 10개월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을 대하는 저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해 #존중 #자신감 #꿈

아이들과 함께 한 2025년의 여정



채은

간석지역아동센터

저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 앞서, 함께 활동하게 된 많은 동료 장학생과의 첫 만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 다른 이유와 마음가짐으로 가치점프 활동에 참여한 동료들을 보며 2025년의 연말은 어떨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될지에 대한 설렘 속에서 10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기간 동안 저는 멘티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한 멘티들은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자 미술 활동을 중심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이어가며 면접 당시 했던 말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회도 방문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미래와 진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도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멘티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들은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의 순수한 대화를 통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도움과 배움을 얻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가치점프 운영사무국과 인천공항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였고, 다문화에 대한 제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여 출전한 미술 대회에서 수상하는 값진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는 소중한 추억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살아가며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가치점프 활동을 했던 2025년을 언제든지 꺼내어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장 #공감 #함께함

지난 일년은 나에게 도움닫기였다



김준하

강화군가족센터

강화군 가족센터에서의 올해 일 년 동안 멘토링은 나에게 성장의 발판
과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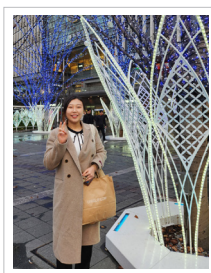
처음 강화군가족센터에서 멘토링을 시작하며 여러 동료장학생들과
센터 선생님들과 회의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난다. 앞으로 일 년간 함께
멘토링을 진행할 멘티들을 배정받고, 진행할 방식에 대해 소개받았던
때가 기억난다. 그 이후로 처음 멘티들과 수업을 진행하며 여러 공감대
및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했던 추억들이 스쳐지나가는 것 같다.

일 년 동안 함께 하며 멘티들에게 때로는 배웠던 점들도 많은 것 같다.
함께하면 할수록 더 성장해 나가는 멘티들을 보며 나 또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던 일 년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들이 생각날 것 같다.
부디 멘토링이 끝난 이후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멋지게 미래를 향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 또한 멘티들과 동료 장학생들에게 많은 배움과 교훈을 얻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일 년이었다.

#웃음 #신뢰 #성장 #추억

함께 웃으며 쌓아 올린 우리들의 10개월



오다현

강화군가족센터

지난4월,강화군가족센터에서처음만난아이들의모습이떠오릅니다.
긴장한 제게 넉살 좋게 첫인사를 건네던 그 밝은 에너지는 10개월간
우리를 이어준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다 보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서로 답답한 적도 있었습
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게임 한 판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며 우리는 나이를 잊은 친구가 되었고, 그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보낸 시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시작한 제 마음보다 훨씬 큰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강화도에서의
사계절은 20대의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너희가 보여준 그 환한 웃음처럼 씩씩하게
나아가길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

#2025 #강화군가족센터 #청소년 #선생님

어느 때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성선우) **NGUYEN MINH TRIET**

강화군가족센터

처음 강화군가족센터로 향하던 날, 집에서 센터까지 편도로 거의 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아이들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아 줄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생각하다 보면 설렘이 먼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걸음이 어느새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대학생 '선생님'으로 곁에 있으려 했지만, 돌아보면 저 역시 아이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며 낯선 언어와 환경 앞에서 망설이고, 실수하고, 다시 용기를 내야 했던 제 모습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제 자리에서 한 걸음씩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학 문제를 끝냈다며 수줍게 웃던 얼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눈빛,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 주던 순간들은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군 아이들 덕분에 저 역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덕분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웃어 주신 동료 장학생들, 언제나 현장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신 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이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가치점프 운영 사무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던 순간을 저는 오래도록 간직하며 기억하겠습니다. 그 호칭 하나에 책임감과 설렘,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할 마음이 함께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늘 완벽한 어른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아이들 덕분에 저는 매 순간 더 진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다기보다,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기억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함께 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경청 #자신감 #끈기

청소년 멘티와 함께 만든 작은 점프, 그리고 나의 성장



박준성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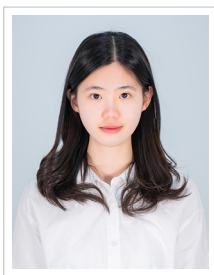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은 저에게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장학생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멘티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멘티와 꾸준히 만나며,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하고, 잘되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경험은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동료 장학생들과 고민을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갔고, 센터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문제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저에게 나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게 해 준 활동이었으며, 앞으로도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자세를 잊지 않게 만드는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순수함 #긍정 #배움 #성장 #같이가치

같이, 가치 성장 !!



석은진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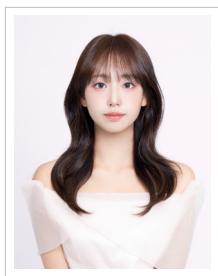
저는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로 활동하며 아이들과 가치(같이) 성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설레어 지원하였습니다. 제게 공항은 설렘이자 꿈의 공간이었고, 아이들 또한 저의 웃음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가치점프 활동은 단순히 설렘을 넘어,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 저 또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멘토’의 역할에 집중하여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아이들과 지내며 가치점프에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활동과 센터 내 활동을 하며 돌아보니 어느 순간 저는 배움을 전달하는 사람인 동시에 아이들에게 배우는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진심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진심을 전달할 줄 알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웃음을 주었습니다. 센터에 가면 항상 은진쌤~ 하면서 뛰어와 안아 주었고, 나들이할 때는 선물이라며 손에 꽃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순수함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어른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에게 도전이자 출발이었던 가치점프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웃음이 오래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단법인 점프, 센터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반성장 #눈높이멘토링 #러닝메이트

아이들의 진심과 함께 뛰어오른 나의 '가치 점프'



이아령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낮을 가리던 아이가 진로체험 후 활짝 웃던 얼굴, 스승의 날이라며 수줍게 건네던 초콜릿,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잊지 않고 건네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까지, 멘토라는 이름으로 다가갔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제가 더 많이 위로받고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라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아이들의 투명한 솔직함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조금 달라도, 진심은 복잡한 계산 없이 통한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재거나 주저하지 않고, 아이들처럼 서슴없이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인'이라는 뿌리를 가진 너희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며, 지금처럼 그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족한 멘토를 믿고 따라와 줘서 고마워. 동료 장학생들과 너머인천 고려인문화원 학생 및 선생님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단법인 점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함께성장 #이주배경청소년 #관계와신뢰

가치점프에서의 성장



최호균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 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생활과 개인 일정, 그리고 멘토링 활동을 함께 병행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멘티 청소년들 덕분에 끝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두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았고, 멘토링 수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노력할수록, 아이들 역시 점점 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나 성과보다 관계와 신뢰가 먼저라는 점, 그리고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태도와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 #책임감 #인내

한 번 걸어본 길을 함께 걷다



카르바노바다이아나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저에게 한국 사회 정착은 언어와 문화라는 벽을 스스로 넘어야 하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가졌던 “나에게 길을 안내해 줄 선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인천공항 가치점프 지원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10개월간의 활동은, 저의 역량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활동 초기에는 학생 간의 학습 수준 차이와 ADHD 성향을 지닌 멘티로 인해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획된 진도에 매몰되기보다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멘티를 차분히 이끄는 저의 책임감과 인내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멘티의 컨디션에 따라 놀이와 학습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식을 터득하며 교육 역량을 한층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모님으로부터 직접 과외 요청을 받을 만큼 깊은 신뢰로 이어졌고,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습 지원을 넘어 멘티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하는 존재가 된 것 또한 큰 수확이었습니다. 중학생 멘티들과는 진로와 또래 관계에 대해 소통했고,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을 위해 은행 업무나 생활 통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저의 언어적 강점과 다문화 환경에서의 경험이 멘티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저에게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의 역량이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며, 스스로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도약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단함 #성취감 #사랑 #좋은안녕

사랑하는 새날학교 아이들과 새로운 날들을 기약하며 안녕!



배민주
부천새날학교

운명처럼 마주한 가치점프 공고에 지원했던 것이 엇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2025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제 삶의 궤적에 두고두고 흔적을 남길지도 모를 일이 됩니다.

아무 연고 없는 부천에 왕복 2시간 주 3일씩 방문하는 것도, 난생처음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마주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국어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습니다.

우선 사전교육과 간담회 때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취향에 대해 궁금해하고, TMI가 될지라도 제 이야기를 여실히 오픈하며 다가가는 것이 라포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맡았던 아이들의 사랑을 당당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에게 올림픽이 끝나고 '선생님 덕분에 재미있어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연락해 주었고, 어떤 아이는 중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저에게 '놀다가 정 모르겠으면 전화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랑을 배로 돌려주고 싶어 문법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행사 하나라도 더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랑만큼 이별도 알려줬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아이들이 타학교에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쩔 수 없음을 알지만 헤어진 아이들이 생각날 때면 절로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땐 후회 없이 함께하고, 헤어질 땐 다음을 기약 하며 이별하며, 새로운 인연은 한껏 반가워하는 것이 좋은 안녕임을 깨달았습니다.

발대식 때 작성했던 활동 목표를 다시 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90%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열 달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지켰다는 성취감은 단단히 자리 잡아 제 근간을 이룰 것입니다. 함께해 준 사무국 관계자분들, 선생님들, 동료 장학샘들, 그리고 우리 세날학교 아이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회인 멘토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파이팅! 감사합니다 ♥

#배움 #성장 #위로

함께 달려나가, 함께 날아오른 시간



고가희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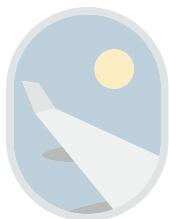
3월부터 함께한 긴 기간 동안 멘티들은 활주로 위에서 천천히 속도를 내다 어느덧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눈에 띄게 성장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나가는 진도에 멘티들이 학습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실력이 늘어서 어느덧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내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선생님,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상하게 더 쉬운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욕심에 하기 싫은 것도 많이 시키는 선생님이었는데도 좋아해 주고 따라와 준 멘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멘티들이 “저도 선생님처럼 나중에 멘토링 선생님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해준 건 저에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저 또한 멘티들에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것저것 애매하게만 잘하는 것 같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곤 했는데 대학교에서, 사회에서 저를 타인과 비교하며 작아질 때마다 멘티들이 해주는 말들이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멘티들과 함께하며 저 또한 위로받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자기성찰 #진로탐색 #책임감 #성장

도전 속에서 발견한 나의 가능성



박성준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이라는 공간이 막연히 크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다양한 활동과 미션을 수행하며 인천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가치가 연결되는 공간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 과정에서 주어진 책임을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웠고, 멘티들과 팀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토님과의 소통을 통해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제 강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에서의 경험은 앞으로의 진로와 삶 전반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씨앗 #서로 #배우는 #시간
새싹을 기다리며



강나래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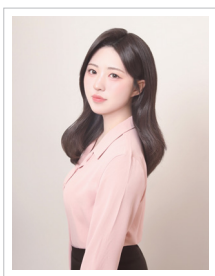
처음 가치점프에 합격하고 멘토링을 준비할 때, 기대감도 있었지만 걱정이 앞섰다. 내가 아이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 수업하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등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만난 첫 만남은 그동안의 걱정이 무색하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너무 해맑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멘티들 덕분에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가치점프는 나의 올해 첫 도전이었고 3월의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점차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치며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멘티들에게 학교 생활, 유행하는 것들과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듣는 것은 나도 모르는 새 내 시야를 넓혀주었고 멘토링에 대한 나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다. 단지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닌 같이 공감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정답을 찾아가며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월부터 10개월 동안 우리는 차곡차곡 씨앗을 심었다. 이제는 새로 자라날 싹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심은 씨앗이 멋진 나무로 자라길 기대한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 준 수O 찬O 미O 민O 고마워!

#가치 #지속 #애정

가치점프 활동을 포기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이지영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사실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에는, 제가 가치점프 활동을 이렇게 까지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치점프 활동을 단순히 제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가던 어느 여름, 모 재단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학금에는 타 재단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게 되는 구조였고, 해당 장학금을 받으려면 가치점프 활동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모두 제게 가치점프 활동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게 들었던 생각은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멘티들과 정이 많이 들었고, 동료 장학생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치점프 사무국과 협의하여 2학기 분량의 장학금을 포기하고 활동을 지속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돈도 받지 않고 일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가치점프와 함께 했던 2학기 활동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새로운도전 #함께자란계절 #가치있는연결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도움닫기



장수련

사우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제게 첫 교육봉사이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용기를 내어 시작했지만, 막상 마주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혹여나 나의 서툰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부족하지는 않을까, 능숙하지 못한 모습에 멘티들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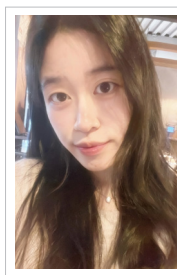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멘티들은 저를 믿고 성실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활동 도중 담당 멘티가 여러 번 바뀌며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에 더 많은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 함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니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르게 잊어가고 있던 순수한 감각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동심을 아이들을 통해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네주는 꾸밈없는 애정에 제 마음의 키도 한 뼘 더 자란 기분입니다. 멘티들의 꿈을 고민하며 기획한 진로 체험활동, 뜨거운 열기 속에서 뒹눴던 펜타포트 페스티벌, 그리고 센터에서의 다양한 행사들까지 함께 웃으며 보낸 사계절의 추억들 모두 인생에서 오래오래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사랑과 가치점프의 지원 덕분에 10개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걸어온 동료 장학생들과 사랑스러운 멘티들, 도움을 주신 센터 내 선생님들께,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인천공항 가치점프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성장 #즐거움 #같이 #기억 #변화

가치점프, '같이'여서 가능했던 시간



나수빈
서곶지역아동센터

교육봉사활동을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처음이 떠오른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경험을 통해 나 역시 성장하고 싶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그런 나의 바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출근하자마자 나를 발견하고 전력으로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 퇴근 시간이 되면 문 앞을 막아서며 가지 말라고 하던 작은 손들, 다음 수업까지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며 슬퍼하던 모습들. 가치점프에서의 하루는 늘 아이들의 진심 어린 애정으로 채워졌다. 그 모습들은 나에게 이 시간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매번 알려주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수업을 넘어서는 순간들이었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보낸 시간 속에서 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갔다.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함께한 동료 장학생들과의 시간 또한 이 활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이'의 가치를 배웠다. 대표 장학생으로서의 짧은 경험은 나에게 책임과 배려를 남겼다.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선택했던 휴학 기간,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그 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 10개월은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나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인내 #성장 #성공

미래의 장학생이 될 아이들에게



변준혁

서곶지역아동센터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대략 20여 명 정도의 귀여운 멘티들과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순간순간들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저조차도 나아갈 방향을 헤매는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한 줌의 도움이 될까 아등바등 지내왔던 시간들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놓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10개월의 끝 속에서도 아직도 혼돈의 세계 속에서 저만의 길을 찾지 못하였지만, 그 헤매는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다 보면 무엇인가가 제 속에 자연스레 갖춰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저와는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덧셈 뺄셈도 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도 언젠간 제가 겪어왔던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멋진 장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끝을 모르기에 단정해줄 수는 없지만, 같이 그런 멋진 미래를 위해 열심히 견뎌보자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그 끝에 멋진 길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있길 바랍니다.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젠간 웃으면서 다시 볼 날이 오길 바랍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성장 #책임감 #공감

아이들과 함께 자라난 10개월의 변화



민연서

아이원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은 저에게 '누군가를 돕는 경험'을 넘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고 제가 과연 장학생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매주 센터에 꾸준히 방문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하면서 점차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대표 장학생으로서 동료 장학생들과 소통하고 활동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협력하는 경험은 제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누군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입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꿈 #성장 #배움

함께한 10개월, 함께 자란 시간



이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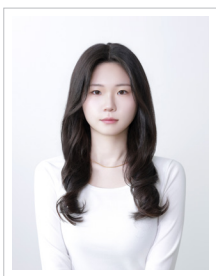
아이원지역아동센터

가치점프와 함께한 10개월은 나의 꿈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다. 교직과 일반 취업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던 나에게, 아이들과 함께한 이 시간은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누군가의 성장 과정에 곁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일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여러 번 반복해 설명한 내용을 마침내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냈던 순간, 작은 칭찬에도 밝게 웃으며 기뻐하던 아이의 표정,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이야기 하던 모습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갈수록 조금씩 마음을 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청소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할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응원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을 들어주고, 밝은 미소를 보여주던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일상 #동행 #꿈

일상이 된 만남, 다시 그려진 나의 꿈



이서현

아이원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에서의 멘토링은 처음엔 하나의 '일정'이었다. 정해진 날에 만나 준비한 활동을 하고 헤어지는, 비교적 짧고 분명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10개월을 함께 보내며 그 만남은 점차 나의 일상이 되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루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나의 일상에도 아이들과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였다. 대화와 질문, 망설임과 도전의 순간들이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지금은 하고 싶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도 직접 경험해 보면 의미와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메시지는 멘티들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다. 멘티들은 점점 스스로를 믿는 힘을 키워갔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 또한 앞으로의 방향과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이 시간은 멘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험이자 나에게도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함께성장 #존중 #관계성장 #배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10개월



한예지

아이원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저에게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방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원지역 아동센터에서 장학생으로 활동하며, 아이들과 천천히 관계를 쌓아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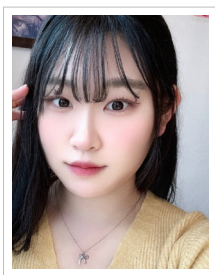
교과 학습을 중심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동시에 보드게임도 하고 가치점프 올림픽, 인천 치즈스쿨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집중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체험활동으로 과자집과 페트병 어항 전구 무드등, 크리스마스 뜨개 키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결과물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느꼈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이어가며 아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장학생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의 만남, 한번의 수업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 장학생들과 선생님들 또한 든든한 존재였고, 서로 배우고 의지하며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10개월의 경험은 저를 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긍정 #성장 #애정

가치점프와 함께한 성장의 시간



유나림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처음 활동 합격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센터를 방문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수기를 적을 시간이 다가오니 아이들과 긴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 실감 납니다. 훗날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인천공항 가치점프' 일 것입니다. 가치점프를 통해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고민했던 동료장학생들, 늘 '나름 선생님!' 하고 밝게 다가와 주던 멘티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학습센터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멘티들을 많이 성장시키고 싶다는 다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루 하루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능숙해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멘티들도 성장했지만 저 역시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순수한 애정과 예쁜 미소로 다가와주던 멘티들을 보며, 저 역시 타인에게 더 밝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가치점프는 저에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며 행복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멘토링 #성장 #힐링

멘티에서 멘토로



이승재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나 역시 멘티였다.

중학생 시절, 나는 공부에 대한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 불안함에 놓지 못해 하는 등 마는 등 이어가던 공부에 대해 '필요하면 할 거야'라는 막연한 핑계를 댈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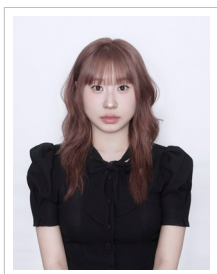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주말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별 뜻 없이 참여한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모습은 당시의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처음으로 꿈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나는 그때의 멘토와 같은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멘토로서 누군가를 마주하게 되었다. 멘토는 내가 예상했던 역할과는 달랐다. 멘토링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쌍방향의 교류였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웠다. 초등학교 아이는 우는 이에게 공감하는 법에 있어서는 나보다 나았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대학생 멘토 역시 중학생의 나에게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기도 했다.

연령대에 따라 교육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들에게는 당장의 성적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처럼 가치점프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며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더불어 지난 1년 반 동안의 군 생활 속에서 사람에게 치이며 생겼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다.

#멘토링의 의미 #함께한 성장
#자기성찰 #자기인식의 변화

멘티들이 알려준 나의 가치



박연서

우리들지역아동센터

처음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를 지원했을 때의 마음은 단순했다. '불기만 한다면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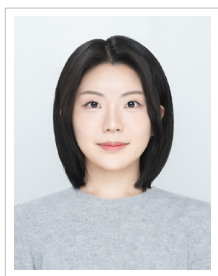
하지만 면접은 예상보다 큰 흔들림을 남겼다. 뚜렷한 강점이나 눈에 띄는 스펙이 없다고 느꼈던 나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대 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마음이 앞섰다. 그런 상태로 확인한 합격 발표에서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의문이었다. '왜 나를 뽑으셨을까?'

그러나 10개월의 여정을 모두 마친 지금에서야,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센터와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내가 멘티들에게 건넬 수 있는 '진심'과 '최선'을 바라봐 주셨던 것이다.

활동 초반에는 멘티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은 달라졌다. 멘티들 덕분에 나는 활동하는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다.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의 장점과 예쁜 면을 멘티들이 먼저 알아봐 주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멘티들의 존재는 스물한 살의 나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처음에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용기 #책임 #성장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



이유화

웃음꽃지역아동센터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기 전, 나는 스스로를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공항 가치점프 멘토링을 이어가며, 내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멘티들은 공부가 잘되지 않거나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찾았다.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고민해 주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멘티들이 나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비빌 언덕처럼 생각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신뢰는 나에게 책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은 시험을 앞둔 멘티들의 모습이었다. 긴장된 얼굴로 “잘 보고 올게요”라고 말하며 시험장으로 향하던 모습에서 분명한 변화를 보았다. 성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해보겠다’는 태도가 먼저였다. 그 용기는 누군가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용기를 배우고 있었다. 멘티들을 책임지는 역할 속에서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익혔고,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멘토링은 나에게 용기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주었다. 용기는 혼자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 누군가의 옆에서 주는 경험과 그 신뢰를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나는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가치성장 #꾸준한나눔 #책임감

큰 성장으로 돌아온 작은 나눔



박채린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저는 꾸준히 봉사한 봉사의 중요성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이 생겼고, 책임감은 활동에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럽던 멘티가 점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해보려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소심했던 멘티와 개인적인 고민, 짝사랑 이야기 등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멘토링을 진행하며 쌓이는 작은 변화들을 지켜보며 제가 하는 활동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티의 성장을 응원하는 과정 속에서 저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멘토로서 약 10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은 저에게 나눔은 두배로 돌아와 저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을 알려준 활동이었습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영감 #사탕 #모루인형 #동심 #어린이왕자
“선생님 내일도 오세요!”



이연주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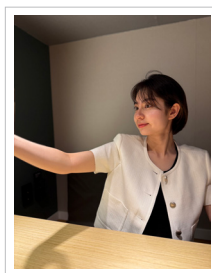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영감'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치점프 멘토링에 임했지만, 활동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탕 하나를 받기 위해 센터 구석 구석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모습, 모루 인형을 정성껏 만들며 아껴 주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다투던 친구들이 금세 화해해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며, 어른이 되며 잊기 쉬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관계의 언어를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10개월 멘토링의 막바지에 다다르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 가는 저를 붙잡고 "선생님 내일도 와서 저랑 놀아주세요!"라고 말하던 아이의 한마디는 큰 감동과 뿌듯함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제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아봐 준 것 같아 행복하고 벅찼던 한 해였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는 어린 왕자의 문장처럼, 아이들의 웃음 덕분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운영사무국과 센터 선생님들, 동료 장학생, 그리고 멘티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멘티에서멘토로 #공부의이유 #소통과동기부여
#기다림의미학 #함께성장하기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답장: ‘가르치는 사람’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듣는 사람’으로



제프리자흐라바틀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학창 시절, 저는 사교육 대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열정적인 멘토님께 큰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멘토님께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 덕분에 저는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 활동을 시작하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진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자.”

담당 멘티 중 유독 잠재력이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산 및 공식 암기가 훌륭했지만, 서술형과 개념 정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 습관만 잘 잡아주면 중·고등학교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거란 확신에 욕심을 부려 심화 학습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멘티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걸 왜 해야 해요?”라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제 일방적인 열정이 아이에게는 그저 버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저는 문제집을 덮고 아이와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 과거 경험을 들려주며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 설명했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멘티 성향을 존중해 수업 중 고민을 듣는 ‘소통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러자 멘티는 지루해하던 수업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스스로 공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은 저에게 가르침보다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로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할 동기가 생길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멘토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의지 #편한동네형 #친구같은

선생님에서 시작해, 형으로 끝나기까지



하유민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안녕하세요! 유민쌤에서 이제 거진 유민이 형이 되어버린, 5기 장학생 하유민입니다:) 올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두 친구의 멘토링을 진행했는데요, 이젠 친구같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보았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을 멘토링한다는 부담감을 조금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저랑 보내는 시간은, 그 친구들에게 있어 정말 일생일대의 귀중한 1분 1초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저도 경직된 모습으로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랑 마음도 잘 맞고, 개그 코드도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멘토링은 편한 분위기를 가져가자는 것이었기에, 그때부터 저도 농담도 조금씩 하면서, 최대한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멘토링을 계속해 수능과 입시까지 끝냈고, 글을 작성하는 지금, 한 친구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증을 얻었고, 나머지 친구도 결과를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분위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정말 보람찬 1년이었던 것 같네요 :-)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다같이 #성장 #소중한추억

우리 모두 다가치 점프



배서현

인천행복한돌봄 계양지역아동센터

가치점프 5기에 지원하기 위해 썼던 자기소개서를 오랜만에 열어보았다. 자기소개서는 가르침을 주려는 의지가 가득한 멘토로서의 다짐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힘든 시간, 즐거운 시간 모두 지나고 보니 나 역시도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며 멘티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2025년이 되었다.

진로체험활동 장소가 박물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관심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집에 갈 시간이 되니 아쉬워서 더 있고 싶던 하루, 가치점프 올림픽에 참여해 멘토링 날 중 가장 신나게 뛰어다니는 하루, 대학로 연극을 다 같이 인생 처음 관람한 하루, 롤러를 처음 타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하루,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던 하루까지, 가치점프 활동을 되돌아보면 멘티들과 함께 한 모든 날이 값지고 소중한 추억이지 않을 수 없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있잖아요~” 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거리던 채O, 채O, 수O, 성O이의 이야기를 이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게 느껴진다. 헤어짐에 대한 섭섭함은 지난 1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따라와 준 멘티들 덕분이라는 생각에 고마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로서의 기억은 인생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멘티들도 지금까지 함께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멋지게 성장하길 응원하고 싶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성장 #행복 #원동력

아이들과 함께한 여정



이사비

인천행복한돌봄 임학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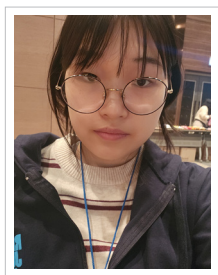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내를 배우기도 했고,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을 통해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료 장학샘들과 고민을 함께 하면서 조언과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서 교사라는 꿈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고, 아이들이 저한테 보여준 마음 하나하나와 말 한마디가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순간들, 매번 웃는 얼굴로 반겨주신 센터의 선생님들, 의지가 되었던 좋은 동료 장학샘과의 소중한 인연과 추억들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긍정 #자신감 #감사

함께 웃고 성장한 시간



탁규빈

인천행복한돌봄 임학지역아동센터

어느덧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조심스럽고 낯을 가리던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아이들과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 집니다.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점차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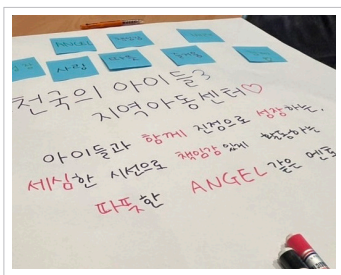
공부나 외부 활동을 도와주며 아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는 큰 감동을 받았고, 스케이트장에서 롤러를 타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센터 선생님들, 다른 동료 장학생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체육 활동을 하며 웃고 뛰어 놀던 시간들도 즐겁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마음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받은 시간이었다고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꾸준히 10개월 동안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센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활동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 준 동료 장학생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함께해 준 아이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든 #마음

작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힘



이수민

천국의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1년은 어떤 모습일지 막연한 궁금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간이 어느새 차곡 차곡 쌓여, 이제는 ‘끝’이라는 단어로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마주한 시간들은 늘 계획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소소한 행복과 오래 남을 추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오던 웃음과 아이들의 작은 변화들은 이 활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센터 선생님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진심 어린 조언과 경험을 나눠주신 임직원 멘토님들, 그리고 이 활동이 1년 동안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가치점프 운영 사무국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세상은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내는 평범한 사람들 여러 명의 힘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10개월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만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사회인 멘토로 다시 가치점프에 돌아오겠습니다. ㅎㅎ

#변화 #성장 #관계 #기다림

함께하며 배운 것들



김민서

청아한지역아동센터

저는 저 자신을 아이들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소 부담스럽고 낯선 존재였어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멘토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며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멘티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말을 걸어도 수업 시간 내내 옆드려서 일어나지 않아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번만 해보자” 했던 날들이 쌓여서 지금은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제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멘티의 성장이 눈에 보이니 그 모습이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멘티는 제게 “선생님이 제 언니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었는데 이 말을 들으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건 정말 기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저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관심과 시간을 들여 마주했을 때 분명히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느린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습센터의 선생님, 임직원 멘토분들을 통해 결과와 해결에만 집중하던 시선에서 벗어나, 사람과 과정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었고 저 역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움 #질문

나를 알아가는 과정



박성민

청아한지역아동센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적응한다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난 날에는 내가 1년간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왠지 불안하고 어색했고,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신경을 기울이다 보니 피로감은 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오후 3시에 저를 보며 반겨 주는 아이들, 모르는 영어 문제를 들고 저를 부르며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며 매주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동시에 평소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동료 장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치점프 매니저님들 덕분에 약진할 수 있었던 1년 이었습니다.

이 수기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었던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장 #친밀감 #신뢰 #감동

함께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



이다은

청아한지역아동센터

가치점프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다. 처음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걱정과 함께 시작했던 활동은 어느새 나의 일상과 마음 한편에 깊이 자리 잡았다.

20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수업을 진행한 기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동안 나는 멘티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속상해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관계를 쌓아갔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선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점점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모습을 보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 "선생님, 내년에도 계속 오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만큼 해주시는 선생님 없어요." 그 한마디는 지난 2년간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말이었다. 더 잘하려 애썼던 수업 준비, 아이 한 명 한 명을 이해하려 고민했던 순간들, 그리고 쉽게 드러내지 않았던 나의 진심이 아이에게 전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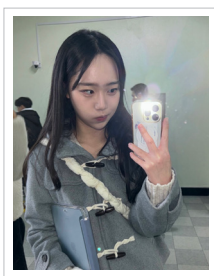
이 활동을 통해 성장한 것은 멘티들만이 아니었다. 나 역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배우고, 기다림을 익히며, 누군가를 꾸준히 믿고 지지하는 어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신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사실을 가치점프를 통해 배웠다.

20개월의 여정은 나에게 '성장'이란 혼자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멘티들과 나는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그 아이의 한마디는 앞으로도 내가 누군가의 곁에 서는 일을 계속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이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happy #힐링 #성장

해피아이는 오늘도
happy입니다-!



김윤수

해피아이지역아동센터

봄에 시작했던 멘토링 활동이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았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엔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년을 마쳤고, 갓 초등학교 입학했던 우리 1학년 멘티들은 이제 후배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무엇보다, 첫 만남에 낯가리던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먼저 와서 안기고 장난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합니다. 학업과 봉사 활동을 병행하면서, 버거운 순간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우리 동료 장학생들과 가치점프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해맑은 모습으로 제 걱정들을 녹여준 우리 해피아이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저에게 힐링이었습니다. 같이 공기놀이, 술래잡기를 하며 저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종종 다시 꺼내 보곤 했습니다. 추운 날, 자기는 귀마개가 있다며 목도리를 빌려주고, 간식이 생기면 꼭 나눠주던 아이들의 작지만 소중한 마음들이 오랫동안 생각날 것 같습니다. 활동이 마무리되어가는 요즘, 괜히 아쉬운 마음에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더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들면 일부러 웃긴 표정을 짓곤 하는 우리 장난꾸러기들이 지금처럼 밝은 모습 잃지 않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동반 성장 #유대감 #친구

같이 점프, 가치 점프



박정우

해피아이지역아동센터

면접 날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열정이 넘치는 8톤 트럭’이라고 말했던 것, 청소년을 가르쳤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할 말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아이들 성대모사를 해서 면접관님들을 웃게 했던 것. 그 하나하나 모든게 지금까지 떠오릅니다. 그중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12월까지 성실하게 멘토링을 이어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장 깊이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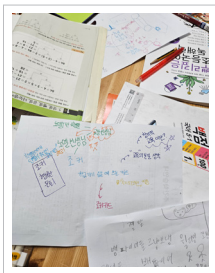
10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처음 방문하여 아이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던 날,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을 물에 던진 날,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청양에 놀러 가서 센터 선생님들 몰래 새벽까지 놀았던 날을 거쳐 이 수기를 작성하는 날까지 10개월의 모든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저 또한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보고 싶고, 좀 더 잘 가르쳐 주고 싶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던 것 모든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12월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멘토링 활동이 모두 끝납니다. 가치점프를 통해 배운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년에도 종종 센터에 방문하여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한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

#함께 #성장 #웃음

같이, 가치, 점프



김희준

행복한동산지역아동센터

지난 10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보며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저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것에 많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멘티들에게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멘티들의 성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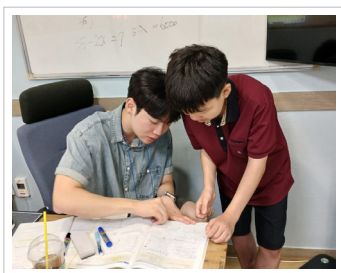
가치점프 활동은 저의 적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로 또한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대식부터 중간 역량 교육, 임직원 멘토링까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멘티들에게도 가치점프 활동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지원, 관계형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며 쉽게 설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방법과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멘티들이 작은 것에도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센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며 더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활동했던 만큼 가치 있었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감 #인내 #성장

가치점프를 하면서 배운 진짜 ‘교육’의 의미



김민혁

BTC지역아동센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면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잘 가르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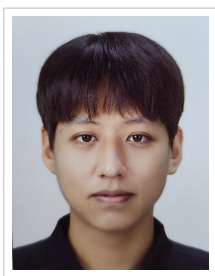
교육은 지식 전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과 신뢰를 쌓고 마음을 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었다. 어떤 아이는 금세 마음을 열었지만, 어떤 아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또 지나치게 편하게 다가와 거리 조절이 필요한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마다 성향과 상황이 달라 같은 방식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다.

친해진 이후에도 고민은 이어졌다.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아이, 의지는 있지만 학업 능력의 한계로 힘들어하는 아이, 인정을 받고 싶어 부정행위를 선택하는 아이까지 상황은 늘 예상 밖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르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교육이란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일이며, 사랑과 애정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쉽지 않았지만, 진심을 다한 만큼 아이들의 작은 변화로 보답받을 수 있었고, 그 경험은 나를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었다.

#약속 #책임 #인연 #행운

약속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이어진 시간



유기연

BTC지역아동센터

가치점프 활동은 2025년 한 해 동안 나에게 과분한 배움을 안겨 주었다.

면접 당시 센터장님께서 축구 활동 보조를 할 수 있는 장학생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나중에 센터에서는 학습 지도로만 주 6시간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 이미 약속한 일이었고,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요구된 만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한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배웠다.

센터에서 학습 지도를 하며, 멘티들의 시험 기간이 되면 시간 날 때 마다 센터를 찾았다. ‘활동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맡은 아이들이니까’라는 마음에서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책임이란 역할이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떠올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올해 활동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동료 장학생들과의 인연이었다. 우리는 기쁜 날에는 서로를 챙기고, 힘든 순간에는 기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같이 있기로 해도 행복하고 재밌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데, 우리는 그런 사이였다.

더불어 발대식 대표 장학생, 중간 역량강화 교육 발표, 장학생 대표 인터뷰 등 여러 기회를 운 좋게 경험했다. 그 행운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 애썼다.

가치점프 활동은 나에게 책임감을 일깨워주었고, 소중한 인연과 과분한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with 멘티, 동료 장학샘, 임직원 멘토

#마음으로하는멘토링 #서프라이즈의기억

#일상의감동 #따뜻한멘토링 #생일파티

함께였기에 더 특별했던 생일의 기억



김채연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은 멘토링 활동 중간에 맞이했던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평소와 다른 없는 멘토링 일정이었고, 모두에게 제 생일을 알린 적이 없었기에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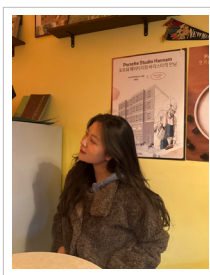
그런데 멘토링 도중 갑자기 문이 열리고 불이 꺼지더니, 센터에 있던 멘티들과 장학생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에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내 기쁨과 고마운 마음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모두가 건네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소원을 빌며 촛불을 끄는 순간, 이 공간이 얼마나 따뜻한 공동체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센터에서는 동료 장학생들의 생일을 함께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군가의 생일이 다가오면 다 함께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고, 좋아할 케이크를 고르며 진심을 담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른 장학생들의 생일을 준비하면서, '내 생일 때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축하해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고, 그 과정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한마음으로 웃을 수 있었던 그 분위기는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with 멘티, 동료 장학생, 임직원 멘토

#즐거움 #성장 #아쉬움 #친구같은 #밥먹었어?

~덕분에 다정했던 10개월



인병현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활동 초기에 저는 열정과 패기로 뚝뚝 뭉쳐 지지치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지칠 때 힘이 되어준 건 동료 장학생들과의 소소한 대화였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같이 고민해 준 채연샘, 지기샘, 지영샘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낮을 많이 가리던 학생들과의 첫날이 떠오릅니다. 학생들에게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에 질문을 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답만 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저에게 한 마디라도 더 하려고 옆에 붙어 쫓알거립니다. 저도 몰랐던 저의 장점을 말해주며,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기억하고 선물해 주는 사랑스러운 학생들 덕분에 올해를 다정한 해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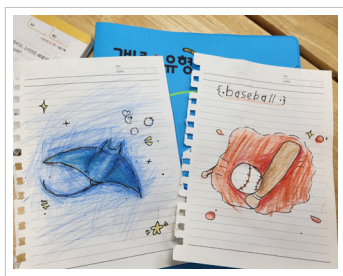
영어만 가르치게 될 줄 알았는데 전 과목에 고민상담까지 하는 게 어려웠지만, 학생이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같이 벚꽃을 보고, 페스티벌도 놀러 가고, 붕어빵도 사 먹고 첫눈도 맞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움만 남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저에게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 주신 사단법인 점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감사드리며, 10개월간 함께 달려온 100명의 장학생들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with 멘티, 동료 장학샘, 임직원 멘토

#이제우리친해요 #그림쟁이멘티 #야구덕후멘토

그림으로 이어진 마음, 관계의 속도를 배우다.



이수진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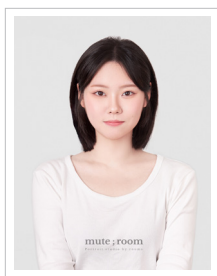
멘티를 처음 만났을 때, 말수가 적고 소심한 모습에 솔직히 걱정이 앞섰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이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다. 그러다 멘티와의 대화 속에서 미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그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또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약속한 문제를 함께 풀고 나면 센터에 있는 보드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어색함은 점점 줄어들었고, 관계도 서서히 가까워졌다.

어느 날 거의 사용하지 않던 색연필이 떠올라 멘티에게 선물했는데, 멘티가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래서, 그다음 주에 내가 준 색연필로 내 캐리커처를 그려 주었다. 또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해 야구를 주제로 한 그림도 건네주었다. 처음에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멘티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편하고 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관계는 빠르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심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with 멘티, 동료 장학샘, 임직원 멘토

#성장 #뿌듯함 #배움

아이들의 한마디로 완성된 성장의 시간



김서연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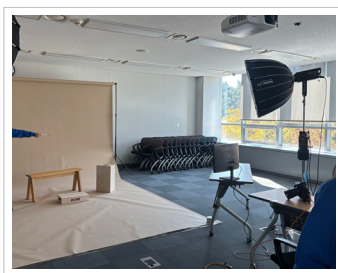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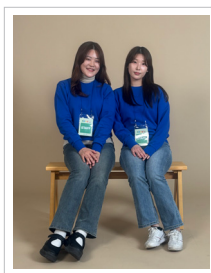
지난 10개월간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멘티들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도 의미 있는 성장의 과정이었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영문법과 단어를 하나씩 설명하고 아이들이 점차 이해해 가는 모습을 보며 그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특히 영어 시험을 잘 봤다며 시험지를 직접 가져와 보여준 멘티의 모습을 보았을 때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중 멘티가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우는데 선생님이랑 미리 해서 그런지 쉬웠어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나의 지도가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깊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진로활동과 수업 중 대화를 통해 한 멘티가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조리 계열 특성화고 진학을 목표로 삼아 합격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멘토링이 학습 지도와 동시에 아이의 선택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다. 아이들이 건네준 짧은 한마디와 작은 변화들은 나에게 큰 뿌듯함과 보람으로 남았고, 그 경험은 멘토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영어 선생님이자 언니 같은 존재로 아이들과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with 멘티, 동료 장학생, 임직원 멘토

#공존의 첫걸음 #가치마을 가족 나들이
#사진으로 하나 되기

사진 한 장에 담은 공존의 첫걸음



이유빈

BTC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가치마을 가족 나들이'였다. 그중에서도 나는 사진관 부스를 맡아 활동했는데, 이주 배경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에 임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역할을 넘어, 한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또한, 점프 관계자분들 및 임직원 멘토 분들과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간 시간도 인상 깊었다. 특히 기존 알럼나이 분과 같은 부스에 배정되어 전 기수 활동 이야기와 취업 조언, 가치점프에 임하는 자세까지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사진관 부스에서는 사진사 선생님과 함께 이주배경 가족들의 가족 사진을 촬영했다. 가족들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인사말을 미리 공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사진 촬영'이라는 작은 활동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활동 마지막 시간에 사진사분께서 알럼나이와 저의 모습을 직접 찍어주시며, 부스에서 저희의 활동이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뿌듯했다.

이번 활동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는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with 멘티, 동료 장학생, 임직원 멘토

#실내캠프 #불꽃놀이 #잊지 못할 추억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BeaTiful Children과 함께 뛰어오른 시간, BTC의 가치점프!



홍진서
BTC지역아동센터

2025년 10월 25일, BTC지역아동센터에서 실내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센터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동료 장학생인 민혁 오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영0이와 함께한 장기 자라는 서툴렀지만 재미있는 무대로 큰 박수를 받았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장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전공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루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뒤, 센터 옥상에 모닥불을 피우고 아이들과 둥글게 둘러앉아 마시멜로를 구워 먹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와 함께 저희들의 웃음이 어우러졌고, 불꽃놀이를 하며 모두가 잠시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조금씩 꺼져갈 무렵, 저희가 입고 있던 대학교 학잠을 아이들에게 입혀주며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 속에서, 이 순간이 아이들에게 작은 꿈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시멜로를 맛있게 구워 “선생님! 이게 제일 맛있어요”라며 제 입에 넣어주던 친구, 그리고 “저 꼭 선생님 후배가 될게요!”라고 말하던 친구의 한마디는 지금도 마음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불빛과 웃음은 단순한 캠프가 아닌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작은 추억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함께 뛰어오른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BTC의 가치점프는 그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성장 #사랑 #꿈 #열정

너희의 내일은 더 밝아질거야



김서연

간석지역아동센터

안녕 애들아, 서연 선생님이야!

10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매주 작은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 서툴고 조심스러웠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스스로를 믿으려는 너희의 모습이 정말 멋졌어.

항상 밝은 웃음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선생님을 밝게 맞이해 주던 너희의 모습은 하나도 그늘진 데가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고마웠던 것 같아.

선생님은 늘 말해주고 싶어. 지금의 너희는 충분히 소중하고, 앞으로의 너희는 더 빛날 거라는 것을 :)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완벽할 필요도 없으니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가 꿈꾸는 것, 너희가 바라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돼.

혹시 앞으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선생님이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도움을 주고 응원해 줄게.

10개월 동안 선생님과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써 내려가줘서 정말 고마워 ~ 사랑해!!

#간식 #보드게임 #순수함 #응원

평생 잊지 못할 강화도



이다함

강화군가족센터

처음 강화군 가족센터로 배정을 받았을 때, 센터와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88번 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향하던 길은 멀게 느껴졌지만, 멘티들을 만날 생각에 큰 기대와 설렘을 안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긴 멘토링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과정 속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멘티들이었습니다. 멘티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밝은 웃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국어와 수학 공부에 성실히 임해 준 멘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가족 캠프, 키자니아 방문, 가치점프 올림픽 등 다양한 활동에 불평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1년간의 멘토링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며 지금처럼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내 멘티가 되어줘서 고마워! 언제나 응원할게!

#그리움 #성장 #행복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최대한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처음 센터에 가던 날, 설렘보다 앞섰던 것은 낯선 긴장감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에는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 탓에 솔직히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준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요!" 그 순수한 한마디는 지친 저의 하루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바꿔놓는 마법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외부 진로 체험 활동은 저에게 또 다른 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러 간 자리였지만, 어느덧 아이들보다 더 신나서 체험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활동을 시작하며 세웠던 저의 다짐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할 것', 그리고 '성실하게 활동을 마무리할 것'. 매주 센터를 향하며 느꼈던 책임감은 저를 채찍질했고, 아이들과 쌓은 진심 어린 사랑은 저를 한 뼘 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평소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던 무심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헤어짐이 아쉬워 아이들의 앞날이 계속 궁금해질 만큼 저의 마음은 넉넉해졌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해 만난 우리 아이들, 너희들이 보여준 환한 웃음 덕분에 나의 10개월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어.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너희의 성장에도 따스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 정말 고마웠어.

#응원 #기다림 #할수있어
#같이점프? #가치점프!

기억해 너희는 항상,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최지욱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꿈나무! 너희와 함께하며 선생님이 가장 고마웠던 건, 매번 조금씩 망설이면서도 결국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해주었던 순간들이란다. 처음 만났을 때 너희는 늘 정답부터 찾았지. 선생님에게 예뻐만 받고 싶었을까? 아니면 틀리면 혼이 날까 두려웠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라는 질문 속에는 틀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선생님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나 답을 바로바로 알려주기보다 “틀려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너희의 도전을 기다려보려고 했었지 ㅎㅎ

어느 날, 잠시 고민하던 너희가 한 명씩, 또 한 명씩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던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나.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은 도전을 해 보려는 그 모습들이 참 멋졌어. 앞으로 세상이 자꾸 너희에게 정답을 요구하더라도, 너희만의 생각과 너희의 속도를 믿어도 괜찮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 도전이 망설여질 때마다 지금까지 너희가 스스로 멋지게 해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으면 해. 선생님도 언제나 너희의 도전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을게.

#이주배경 #함께 #배움 #배움의 선순환

함께 성장한 시간, 멘티에서 멘토로



상지기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먼저, 저는 멘티에서 멘토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경기글로벌센터에서 받았던 학습 지원과 정서적 도움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 다시 같은 곳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그때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줄 수 있어 기쁩니다.

멘티가 매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해 준 점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말처럼, 멘티 덕분에 저 또한 멘토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 시간이 멘티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 가치점프에서 지원해 주신 체험활동을 통해 멘티들이 진심으로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던 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활동 소감을 나누고 수업 그 이상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주배경 선배로서 약 10개월 동안 옆에 지킬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 반드시 더 든든해진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멘티가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늘 옆에서 응원하는 어른으로 남고 싶습니다. 멘티와 함께한 이 한 해는 저에게도 잊지 못할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느린 성실 #다정한 책임감
#배려의 습관 #끝까지 가는 마음

아직 뜨지 않았을 뿐, 이미 날개는 있었다



유지운

사우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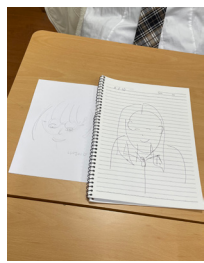
열여덟에서 열아홉으로 넘어가는 시기, 아직 어른이라 부르기에 조심스럽지만, 이미 많은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시기다. 처음 만난 멘티는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렸지만, 먼저 마음을 내어 천천히 다가가 보니 참 따뜻한 아이였다. 나에게 또래의 남동생이 있어선지 선생님보다는 사촌 누나 같은 존재로 남고 싶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넘어,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했지만, 출발선은 달랐다. 나는 비교적 풍족한 교육 환경 속에서 수험 생활을 보냈기에 이 아이의 상황에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었다. 대신 내가 고3 시절 가장 치열하게 붙잡았던 공부 루틴과, 가장 자신 있었던 영어 과목을 전했다. 수능이 임박한 시기, 기본기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함께 반복했다. 노력은 점수로 나타나기도, 그렇지 않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긍정의 방향을 함께 찾았다.

수능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의 결과 앞에 섰다. 그 결과는 처음 상상했던 방향과는 달랐지만, 이 시간을 단정 짓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과는 하나의 표식일 뿐, 이 열 달을 설명하는 언어가 될 수는 없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에서의 10개월은 속도를 재촉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보폭을 맞추는 과정이었다. 청춘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그 곁에 설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꿈 #응원 #미래 #밝은 미소

‘사’랑하는 ‘우’리, 사우지역아동센터 멘티들에게



조아람

사우지역아동센터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던 제가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해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에 담긴 책임이 크게 느껴져, 스스로 ‘선생님’ 보다는 ‘멘토’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이 애정 어린 말투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고, 이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엄하고 어른스러운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멘티들이 시험 기간이라 힘들다고 하면 같이 징징대고, 학교에서의 웃긴 사건을 말해줄 때면 가장 큰 리액션으로 귀 기울이던 모든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저의 첫 멘티들이 우리 사우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라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 10개월간 여러 우여곡절에도, 존재만으로 힘이 되어주는 멘티들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벌써 그리운 우리 사우 친구들! 자신의 마음속에 빛나는 별을 소중히 하며, 앞으로도 밝은 미소로 더 넓은 세상을 자유로이 누비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려나갈 각자만의 미래를 멀리서 누구보다도 응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자취에 제가보탬이 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난 사우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을 적어봅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요?”

#응원 #재능 #열정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멘티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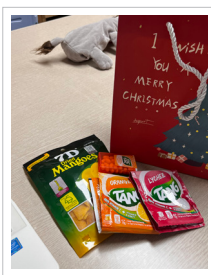
김평은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제가 수업한 멘티들은 스스로가 공부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열심히 할 줄 아는 친구들이었기에 앞으로 성장하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기만 하면 다 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보지 않은 일들에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해보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스펀지 #가능성 #잠재력

웃음꽃, 마음이 자란 곳



이민서

웃음꽃지역아동센터

웃음꽃지역아동센터에서 소O이와 함께한 10개월은 제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매 시간 소O이가 보여준 집중력과 흡수력은 인상 깊었고, 멘토로서 무언가를 가르쳤다고보다 저는 소O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부족한 쌤의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하게 따라와 주어서 고마웠어요.

소O이가 건네준 작은 선물들과 수업 중간중간 들려주던 재미난 학교 이야기들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곧 고등학생이 되는 소O이는 이미 성적을 크게 올려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은 앞으로 어떤 도전 앞에서도 큰 힘이 되어줄 거라 믿어요. 방향성만 잘 잡는다면 소O이는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쌤이 소O이 인생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쌤이 전했던 조언들은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생활도 늘 응원할게요. 모르는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언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연락해도 돼요. 소O 화이팅!

#처음 #성장 #고마움

임학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임경선

인천행복한돌봄 임학지역아동센터

10개월동안 함께 했던 내 첫 아이들아~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마주한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더욱 정도 많이 갖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 처음 너희와 마주했을 때, 선생님이 긴장한 티가 많이 났는지 “준비해 오신 거 다 하셔도 돼요.” 하면서 나를 안심시켜 주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 그렇게 3월에 처음 만나 여름이 지나고, 벌써 겨울이 되어 안녕이라는 말을 준비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느껴. 처음 수업 시작할 때 힘들어했던 수학도 이제는 척척 해내고, 영어 시험 단어도 늘렸지? 학교에서 몇 점 받아왔다고 선생님한테 자랑도 할 만큼 선생님과 열심히 수업한 보람을 너희도 잘 느끼는 것 같아 뿌듯해. 조금은 산만하던 수업 시간도 많이 차분해졌고, 간식 시간이나 다른 프로그램 시간에 선생님도 챙겨주는 너희의 마음이 원래도 따뜻했지만 요즘 들어 부쩍 더 따뜻해진 것 같아. 늘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자라면 좋겠다.

선생님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만날 거야. 그럼에도 너희가 내 첫 아이들이고 첫 제자니, 선생님 마음속에서 너희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10개월 동안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시간이 흐르고 우리 모두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꼭 다시 만나자. 꼭!

#집중과활기 #반짝이는눈빛 #순수한승부욕
#다양한개성 #자라는가능성

다채로운 빛깔로 피어날 너희들의 내일을 응원하며



박시원

청아한지역아동센터

다양한 문화를 품은 아이들이 모인 이곳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아이들과 처음 마주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놀라울 만큼 집중해 문제를 풀다가도, 밖으로 나가 신체활동을 할 때면 누구보다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 독서 시간에는 조용히 책에 빠져들다가 보드게임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이며 함께하자고 보채고, 게임이 시작되면 승부욕을 불태우며 다시 집중하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웠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볼 수 있었고 어느새 반갑게 맞아주는 존재가 되었다. 올해까지만 함께한다는 말을 전하자 내년에도 와 달라며 아쉬워하던 모습은 오래 남을 것 같다.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다양한 모습의 어른으로 성장해 갈 미래가 더욱 궁금해진다. 그 성장의 한 시점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 활동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느낀다. 앞으로 수많은 시련을 마주하겠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언젠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 다시 만나 웃으며 인사할 날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상남자 #자신감 #멋있게 #나답게

자신 있게
멋있게 살자~!



김동현

푸른마을함박도서관

안녕 애들아, 너네들의 장학샘 김동현이야. 인천공항 가치점프가 준 이 기회를 통해 너희에게 편지를 써보려 해 하하.

우선 나는 항상 너희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었어. 암만 봐도 다른 장학샘 선생님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거든. 그럼에도 너네들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었다는 점은 알아줬으면 해~

너네들에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너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고 고마웠어.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배워가는 게 더 많은 거 같아. 내가 가르쳐준 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대부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어. 제목에서 이미 봤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처럼 자신 있게, 멋있게, 나답게 살길 응원할게!! 어딜 가든 간에 주눅 들지 말고, 항상 내가 최고라는 마인드로 어깨 펴고 상남자/상여자답게 다니자! 이런 글 쓰는 거에 내가 소질이 없어서 별로이더라도 이해해 줘~ 모두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어!!

길에서 우연히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해줘!!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가치점프, 푸른마을함박도서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김정아, 박시현 장학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발랄 #행복 #즐거움 #하루의 에너지

항상 빛나는 아이들에게



김정아

푸른마을함박도서관

애들아~ 김정아 선생님이야.

2025년을 다시 떠올리면 너희들이 떠오를 것 같아. 금토는 항상 너희를 보러 갔었으니까. 선생님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 줘서 고마워. 너희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잘거릴 때마다 선생님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한 행복을 느꼈어. 별거 아닌 걸로 웃고 떠들고 할 때마다 얹매있었던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어.

우리가 배운 한국어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했던 수많은 한국어 단어 표현들보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자. 하지만 한편으로 너희에게 살아가며 더 좋은 기억들에 의해 우리 시간들이 희미해지길 바라. 더 멋지고 더 행복한 기억들이 너희를 기다려서 너희가 나랑 느꼈던 행복은 살아갈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것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책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누가 주말에 뭐 했는지 물어보면 눈을 반짝거리면서 신나게 얘기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 선생님이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해. 선생님도 누군가가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기에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연필을 쥐어줘도 잘 못그리게 되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애들아, 그림을 많이 그려. 우리 다이나나는 20권 넘는 만화 꼭 완성해 봐. 진심으로 응원할게. 우리 카이나는 기타치는 능력 그거 되게 귀하고 멋진거야. 여러 곡을 연주해 보고 또 직접 곡을 쓸 수도 있어. 러시아로 돌아간 올000,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갈 테0란, 친구 따라 안000 모두에게 너무 고마워. 선생님은 너희랑 그림 얘기하고 기타, 먹었던 음식, 엄마랑 보기로 한 영화, 우리 차이나타운 갔던 거, 모기 때문에 잘 못 잤다는 얘기 모두 너무 즐겁고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야. 선생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주어서 고마워. 잘 지내 애들아.

#성장 #용기 #웃음

나의 첫 멘티들에게 쓰는 편지♥



박시현

푸른마을함박도서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많았는데, 어느새 막바지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 그새 정이 많이 들었나 봐. 처음엔 어떻게 수업해야 할지,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넘을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들 잘 따라와 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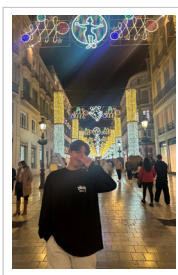
처음엔 다들 낯설고 어색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차렷, 인사! 같이 예의 바른 인사도 해주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런 기억들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던 원동력 같아. 사실 내가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쳐보는 경험도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공부하기 싫어하면서도 늘 수업에 잘 참여해 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단순히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항상 수업 때도 자주 했던 말이지만,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언제 어디서든 너희를 응원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 앞으로의 날들이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날들이길 진심으로 바라!!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서도, 이후에 중학교에 가서도 늘 열심히 공부하고 더 멋진 예000, 아0000, 마0크, 드000, 야0, 다0드가 되길!!!

#응원 #사랑 #행복 #미래

해피아이와 행복했던 2025년



김현서

해피아이지역아동센터

멀게만 느껴졌던 10개월이 지나 어느새 12월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첫 만남에서 멘티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던 저에게, 환한 웃음으로 먼저 다가와 주던 멘티들을 떠올리니 곧 이별이라는 사실이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옆에서 하루가 어땠는지 조잘거리던 모습, 수학이 어렵다 말하면서도 끝까지 도전하던 순간들 덕분에 늘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간단한 문제도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성장해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 또한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음을 체감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했고 멘티들 역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해주어 참 고마웠습니다. 멘티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밝고 예쁜 모습으로 웃음을 잃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 덕분에 2025년이 따뜻하고 소중했던 한 해로 오래 기억될 것 같아. 앞으로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응원할게!”

마지막으로,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가치점프 운영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착륙 Loading

잠시 후,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가 도착지에 착륙하겠습니다.

지난 10개월의 시간은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함께 지나온 순간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이 여정의 의미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 활동 기간 동안
제출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해준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인천공항



“ 너무 행운입니다. ”

“ 마음의 고향
입니다. ”

“ 출국장
입니다. ”

“

편견을 넘어선
성장의 디딤돌
입니다.

”

“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킨
경험이었습니다.

”



가치점프는

“

잊고 있었던 봉사의 의의를
다시 일깨워준 활동입니다.

”

“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의 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다음 비행 Next Flight

10개월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 되지만,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를 통해 쌓은 배움과 성장은 계속됩니다.

이 경험이 각자의 다음 선택과 도전에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여정이 이어지는 어느 지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인천공항
가치점프